



나를 가꾸고 남을 배려하는 세움·나눔 교육공동체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있어요 (2.1 판)

교 장 : 김옥빈
교 감 : 김영주
담당자 : 노영아

본 안내문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12), 「코로나19관련 학교 방역 기본대책(제2-1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8-1판)(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5.20.)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지침이 변경되면 빠르게 수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시적 관찰실이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보건교사와 상담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위해 보호자가 올 때까지 건강상태 변화를 관찰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 등교 발열 체크 장소인 중앙 현관, 보건실과 가까우며 학생들과 교직원의 통행이 비교적 적고 환기가 용이하며 학부모님 도착 시 신속한 하교가 가능한 본교 1층 상담실에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담당자는 학생과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 최대한 학생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주의 깊게 증상 변화를 관찰합니다.
- 학생과 담당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상담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 의심증상 학생 퇴실 후에는 공간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우리 아이가 의심증상으로 일시적 관찰실에 있고 보호자와 함께 즉시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바로 데리러 갈 수 없어요.

- 학교의 교직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방역 업무까지 총동원된 상태이며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보살펴야 합니다. 추가로 배치된 방역전담 인력도 방역 업무에 투입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모두 돌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정에서는 비상시에 부모님을 대신 할 수 있는 보호자를 반드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보호자께서 부득이 학생을 데리러 올 수 없고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하교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때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발견 시 보호자 인계가 원칙이며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합니다.
119신고 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되어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송 원함”을 명확히 전달해야 보호장구를 갖춘 구급대원이 출동합니다.
- 학교 전화번호는 070-5223-XXXX이며 070번호로 시작되며, 이상한 전화로 오인하여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 번호를 저장해두시고 긴급한 연락에 신속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여 일시적 관찰실로 가는 학생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이 많이 불안하고 동요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래 내용을 모든 교직원이 수시로 지도합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는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있어 누구나 코로나19 임상증상자나 확진자가 될 수 있음.
- *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인다고 모두 확진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안해하지 말것
- * 코로나19 임상증상나 확진자를 욕하거나 차별하는 것, 허위사실 유포는 학교 폭력임. 그런 것을 퍼 나르는 것은 2차 가해임. 피해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알릴 것.
- * 욕하거나 차별할 경우 증상을 감추게 되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됨.
- * 코로나19 임상증상나 확진자가 불안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선별검사를 받고 치료 할 수 있도록 공감, 배려가 필요함. (직접 병문안 금지,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떤 공감과 배려를 받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행동.)
- * 증상이 모두 소실되거나 완치되어 학교로 복귀했을 때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깝게 맞이하기.

2020. 6. 8.

회 현 중 학 교 장

직 인
생 략